

투데이 칼럼

안전한국훈련,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으로 가는 길

민선 6기,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도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도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그 무엇보다도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민안전실을 신설하고 재난컨트론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등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가는 데 매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 구마모토와 에라도르의 강진, 세월호 사고,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환풍구, 캠핑장, 낚시배 전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사고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복합재난 등 그 전개양상도 다양하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선제적 예방을 통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많은 위험요소를 해소하였고, 이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 재난상황에 대비한 행정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재난대응 방법과 능력을 익히도록 하며, 이번 훈련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주관 하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그동안은 사전 시나리오에 의거, 도상훈련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실제 상황을 가สม하여 협업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현장 훈련 중심으로 실시되며,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국민의 훈련 참여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훈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의 안전,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예고없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는 반복된 훈련과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재난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보급하여 위험시설물 및 안전사각지대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하면 바로 보수, 보강 등 많은 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대국민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 및 시군별로 유도시 전복, 환경오염, 지진, 산불, 민방위연계훈련 등 11개 유형 30개 훈련이 도상 및 현장 훈련으로 실시된다.

훈련 첫날인 5월 16일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06:00 비상소집훈련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산사태, 침수 등 풍수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제401차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 원전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대비한 실제 주민 대피 훈련과 주요도시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등 복합재난 초동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둘째 날인 5월 17일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대비 훈련이 도상훈련으로 실시하며, 셋째 날인 5월 19일은 유류선 전복 사고에 대비하여 익산 울포에서

실제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불시 메시지 훈련을 통하여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안전을 지키는 필요충분조건

대부분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항상 반복훈련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는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계절별, 시기별, 유형별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상호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사회구조가 복잡화, 고도화되면서 각종 신종 돌발성 재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재난관리는 어느 누구 혼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자율과 책임원리에 입각한 재난관리 원칙과 제도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의식 기본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안전은 기분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다. 안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따라를 수 있도록 전라북도도 기분을 지키며 맑은 바 소임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반복되는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전라북도'의 기틀이 확실히 뿌리내리길 바라며 이번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그 한 걸음이 되길 소망하면서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기원한다.

이희찬

전북도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지역 현안 사업들 지지부진하다

도민이 볼 때 지역 현안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중앙정부 탓이 크다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남의 탓만 하기에는 세월이 아깝다. 정부의 인색함이 원망스럽다고 말만 되어서는 안 된다. 고장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북도 또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지금 이대로는 불만인 사업들이 적지 않다. 우선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이 그렇다. 이대로라면 새만금 사업의 완공은 현재 살아 있는 세대하고는 상관없다. 아들 세대가 주역이 되는 20년 혹은 30년이나 40년 후에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손자 증손자 세대가 주역이 되는 그때쯤 돼서나 가능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도 지적했거니와 전주의 탄소클러스터 사업과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전북도의 어떤 이들은 욕심이 과하다고 말할 터이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같은 지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이다. 대형 국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우리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전북의 오늘은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 비교하는 게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로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한창 추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쪽의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와 전북도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니 도민들은 여간 불만이 큰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브레인들이 더욱더 머리를 써야겠다. 그리고 도지사 이하 모든 단체장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 처벌 강화

도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연 1조원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것을 다시 환기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보고는 도로교통 공단이 2014년도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자료에 근거해 내놓은 것이다.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었다. 그 내용도 옳은 것이지만 내용은 이미 2년 전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사회적 비용이 더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도라면 당시 전북의 예산이 5조원 안팎일 때이다. 그러므로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든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음주 운전이다. 며칠전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세를 망친 게 연일 보도됐거나와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엄해진다.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는 더 커질 게 분명하다. 본보는 2015년도의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 보고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보고가 없어 조금은 아쉽다. 지난해 역시나 교통 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짐작이다. 가난한 우리 전북 지역에서 교통 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이처럼 엄청나다니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예전에 누누히 말했던 바 교통 안전과 관련해 짚어볼 것이 있다. 교통 법규 실천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마땅하다. 어느 구간은 저녁 러시이워 때 교통 불량이 가중되고 있다. 그 때문에 꼬리물기를 감행하는 운전자들이 더러 있다. 몇몇 초급증을 일으키는 자들 탓이 크다. 그들 중에는 표가 나지 않는 경우라도 분명히 음주 운전자들이 있다.

모든 교통사고에는 교훈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은 시민 정신의 발로가 아니다. 운전자 중에는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이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교통 약자인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곤란한 노릇이다. 그 전방 주시 태만도 음주 운전자들이 늘상 저지르는 실수이다. 그리고 안전벨트 비착용도 지적 대상이다. 승용차 뒷좌석의 그걸 무시한 이들 중에는 음주자들이 적지 않다. 이제 다들 각성과 반성이 있어야겠다.

독자제언

아버지 가정폭력, 아들이 보고 배운다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들어온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 또한 커서 폭력을 쉽게 행사하기 때문이다.

유아, 청소년기는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체적 학대를 받으면 아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반복적인 학대를 목격하면 불안 공포로 수면에 장애가 생겨 성장발달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대를 받는 어머니는 대부분 우울 증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이를

통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아이의 자능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지만 혐의 일방성이 멎었다고 느껴지고 자기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상태가 된다. 결국 가정에서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아동들은 폭력을 개인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반응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가정폭력을 자주 목격한 아동은 아주 경직된 남성 우위의 신념을 보이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아버지와 동일시되어 여성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을 답습하기도 한다. 최요한 정을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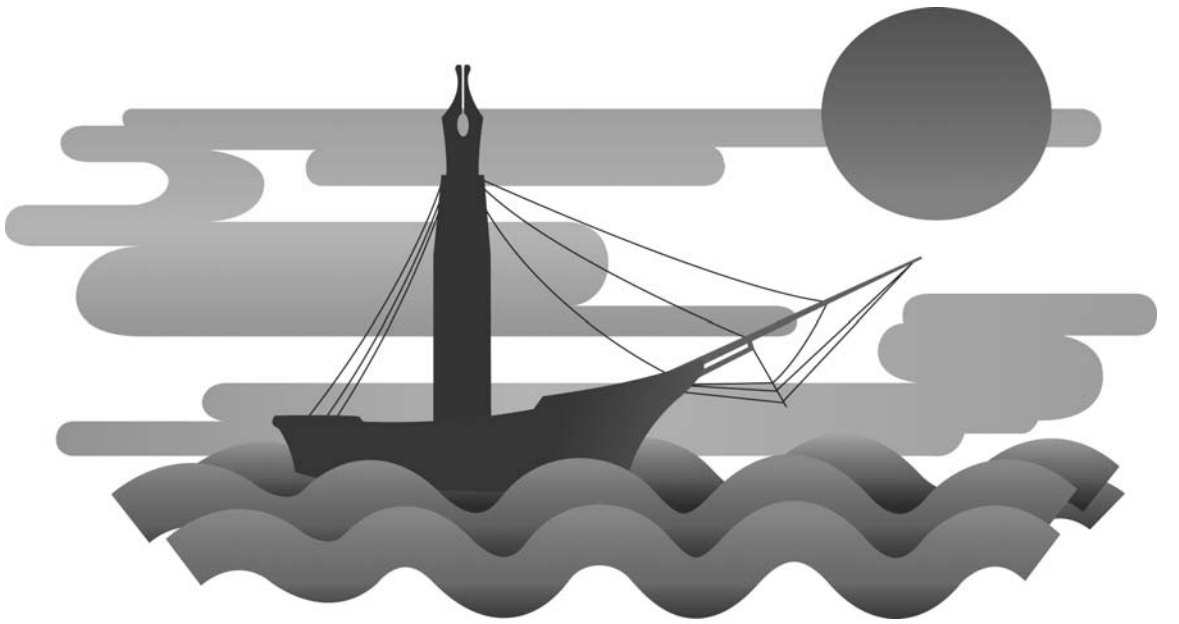
운전자·보행자 작은 교통질서부터 지켜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4,621명에 이른다는 기사를 한 해 동안 뉴스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소수의 끔찍한 살인사건의 숫자와 비교해보면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도 강력범죄로 발생한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고귀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통사망사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며 가해자에게 조차 관대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망사고의 유형을 보면 신호위반, 무단횡단, 음주운전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로 이에 경찰에서는 법규위반

단속,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활동, 노인·어린이 대상 교통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인위적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작은 교통질서부터 스스로 실천하고 지켜나갈 때 교통사망사고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내가 지키는 작은 교통질서가 그 어떤보험보다도 더 큰 생명피가 되어 줄 것이며 나와 우리가족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내는 길이 될 것이다.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윤근영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